

Every Corner of Korea

대한민국 방방곡곡
데이터로 보는 국내 지역 여행: 현실과 가능성



목차

핵심 요약	2
조사 설계	3
1. 현실 진단: 지역 여행의 획일화 경향	4
2. 문제 인식: 지역 여행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7
3. 역설 1: 체험 콘텐츠 – 낮은 만족과 미충족 수요	8
4. 역설 2: 숙박 – 높은 중요도와 현실적 제약	10
5. 가능성: '머물 이유'를 만드는 로컬 숙소와 로컬 콘텐츠	12
6. 결론: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에어비앤비의 노력	17

핵심 요약

현재 국내 지역 여행은 특정 지역(강원·제주·부산), 미식(60% 이상), 호텔(약 70%) 중심의 획일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여행 장벽 1, 2위인 비싼 물가(약 30%)와 긴 이동 거리(약 30%)의 이면에는 이렇듯 획일화로 인한 수요 쏠림과 이에 따른 '투입 비용·시간 대비 체감 가치의 하락'이 존재합니다. 반면 20대 방문을 상위권인 대전의 '뽕지순례' 사례는 강력한 '앵커 콘텐츠'가 발길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시사합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기대와 현실이 엇갈리는 두 가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첫째, 로컬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는 최하위이나, 응답자의 42%가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개선점 2위로 꼽을 만큼 고품질 로컬 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큼니다. 둘째, 88%가 숙박을 최우선 고려하지만 현실은 가성비 저하(예약 시 어려움 1위)와 다인원 공간 부족 등에 직면합니다. 이는 여행객을 외곽으로 밀어내거나 일정을 당일치기로 축소, 나아가 여행 포기로 이어져 지역 내 추가 체류와 소비 기회를 박탈합니다.

로컬 공유숙박과 콘텐츠 확충은 이 역설을 해소할 대안입니다. 공유숙박은 '합리적 가격' (선택 이유 1위)과 '다인원 수용 공간'(50대 선호 1위)을 제공해 숙박 병목을 실질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공유숙박 이용자의 22.2%가 '동네 일상 경험'을 위해 숙소를 선택할 만큼 로컬 콘텐츠(개선점 2위, 42%)와의 시너지도 큼니다. 문제는 국내 공유숙박 공급 부족입니다. 국내 및 해외 공유숙박 이용 유경험자의 약 70%가 '국내 공유숙박 선택지 부족'을 지적했으며, 공급 확대 시 이들 중 93%가 이용 의향을 밝혀 강력한 대기 수요가 확인됩니다.

에어비앤비는 2026년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을 추진합니다. ①한국관광공사, 제주올레 등과 협업, 특색 있는 로컬 숙소·체험 발굴 및 '방방곡곡 원정대' 등 참여형 소셜 캠페인 전개, ②방치된 빈집의 여행 거점화 모색입니다. ③또한, 내국인들이 공유숙박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국인 공유숙박(현행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등) 제도화 관련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조사 설계

조사 목적 한국인의 국내 지역 여행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 모색
이를 위해 여행 전 과정에서 주요 여행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 만족도, 기대 수준 등 전반적인 인식 파악

조사 기관 엠브레인

조사 방법 소비자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 기간 2026년 1월 13일 ~ 1월 19일

조사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 최근 1년 이내(2025년 1월~2026년 1월) 1박 이상의 국내 지역 관광 경험자(서울/경기/인천 제외)
- 향후 1년 이내 국내 관광 의향이 있는 자
- 여행 목적지 선정 시 결정권(부분 또는 전체)을 보유한 자

표본 구성 총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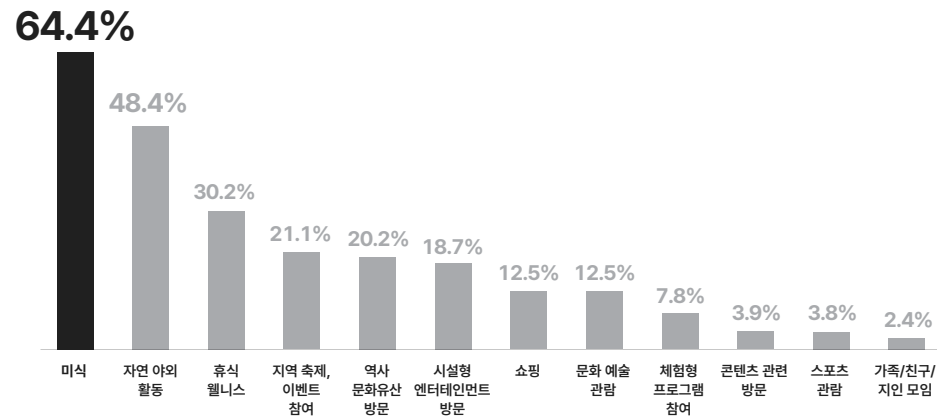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Total
남성	103	122	136	152	513
여성	95	113	131	148	487

1. 현실 진단: 지역 여행의 획일화 경향

국내 지역 여행 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특정 목적지와 여행 및 숙박 형태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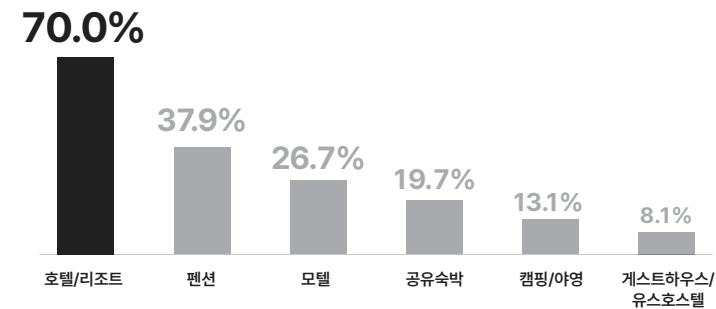
여행 목적: 미식

국내 여행의 주된 목적은 '미식(64.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7.8%)'나 '지역 콘텐츠 관련 방문(드라마, 영화 촬영지 등, 3.9%)' 등 다양한 로컬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숙박 형태: 호텔·리조트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호텔 및 리조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펜션(37.9%), 모텔(26.7%), 공유숙박(19.7%) 등 다른 형태의 숙박 시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 최근 1년간(2025년 1월~2026년 1월) 국내 지역 여행을 한 목적, 중복 응답 기준
 ** 최근 1년간(2025년 1월~2026년 1월) 국내 지역 여행 시 이용 경험 있는 숙박시설, 중복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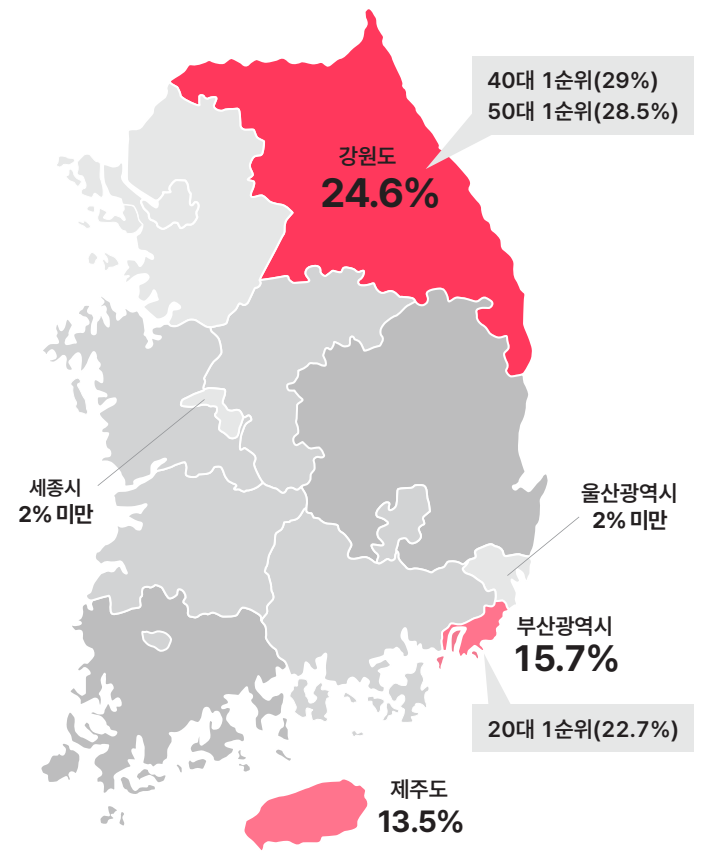
1. 현실 진단: 지역 여행의 획일화 경향

방문 지역: 강원·부산·제주

방문 지역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강원, 제주, 부산 등 주요 인기 관광지 방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는 전 연령대에서 방문지 1~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4050 세대의 방문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부산(22.7%)을 1위 방문지로 꼽았습니다.

반면 울산, 세종 등 일부 지역은 방문 경험 응답이 2% 내외에 머무는 등 지역 간 관광 수요의 뚜렷한 편차가 관찰되었습니다.



* 최근 1년간(2025년 1월~2026년 1월) 방문한 국내 여행지(서울, 경기, 인천 제외), 중복 응답 기준

1. 현실 진단: 지역 여행의 획일화 경향

주목할 만한 예외: 대전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20대 응답자의 '대전' 방문 비율(7.3%, 4위)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타 연령대에서 대전 방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20대에서는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위 '빵지순례'로 대변되는 '앵커 콘텐츠(Anchor Content)'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이끄는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리적인 행정구역의 인지도보다 "그곳에 방문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여행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Base for %	(1000)	(300)	(300)	(200)	(200)
강원도	24.6	20.7	23.0	29.0	28.5
부산광역시	15.7	22.7	14.7	12.0	10.5
제주도	13.5	13.0	14.7	12.0	14.0
경상북도	9.3	5.0	12.7	10.0	10.0
전라남도	6.4	7.0	3.7	7.5	8.5
전라북도	5.7	4.7	6.0	6.5	6.0
경상남도	5.5	4.7	5.3	7.0	5.5
충청남도	4.8	4.7	5.7	5.5	3.0
대전광역시	4.4	7.3	5.3	2.0	1.0
대구광역시	3.8	4.3	4.3	3.0	3.0
충청북도	3.3	3.3	2.0	3.0	5.5
광주광역시	1.6	2.0	1.0	0.5	3.0
울산광역시	1.0	0.3	1.0	1.5	1.5
세종시	0.4	0.3	0.7	0.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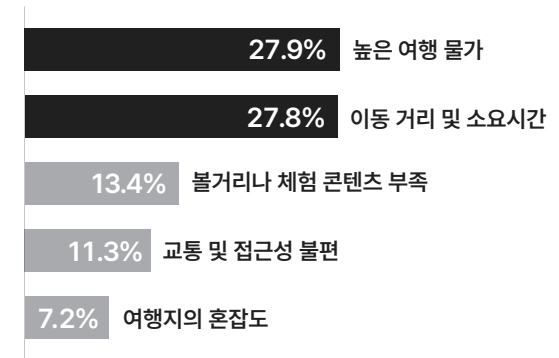
종합해 보면, 국내 지역 여행은 방문이 집중된 지역에서 호텔·리조트 중심으로 숙박하며 미식을 즐기는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2. 문제 인식: 지역 여행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주요 요인: 높은 비용과 물리적 거리

지역 여행을 주저하는 1순위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여행 물가(27.9%)와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27.8%)을 꼽았습니다.

특히 3개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요소 모두 약 57%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보여 다수의 여행객이 체감하는 주요한 고려 사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지역 여행 시 방문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 단일 응답 기준 상위 5개 표기

기저 요인: 수요 집중에 따른 체감 가치 저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여행은 특정 지역, 목적, 숙박 형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위 지표는 한정된 인기 지역과 특정 식당 및 숙소 등에 수요가 몰리며 발생하는 체감 비용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용과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은 결과적으로 시간 및 비용 투자 대비 체감하는 여행의 가치에 영향을 주어 국내 지역 여행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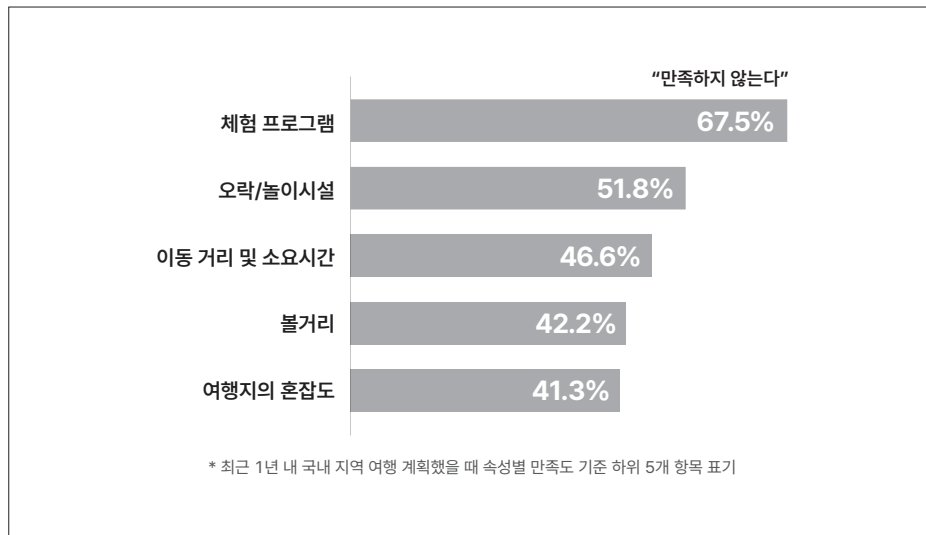
3. 역설 1: 체험 콘텐츠 – 낮은 만족과 미충족 수요

체험형 콘텐츠: 낮은 참여율과 만족도

앞서 최근 1년 내 국내 여행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단 7.8%만이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라고 답하고 지역 콘텐츠 관련 방문(드라마, 영화 촬영지 등)은 3.9%로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는 주요 여행 속성 중 체험 프로그램이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택 가능한 로컬 콘텐츠와 여행객의 기대 수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국내 여행 시 만족도가 가장 낮은 5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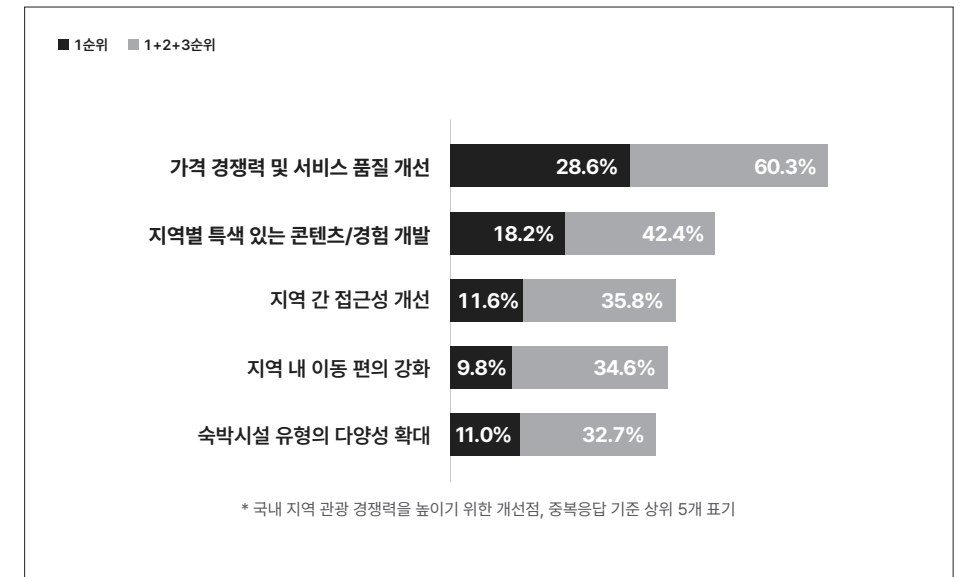
3. 역설 1: 체험 콘텐츠 – 낮은 만족과 미충족 수요

체험형 콘텐츠: 높은 잠재 기대와 수요

동시에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지역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 3위로 '볼거리나 체험 콘텐츠 부족(단일 응답 13.4%, 중복 응답 36.8%)'이 지목된 바 있으며, 향후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가격 경쟁력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어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및 경험 개발(중복 응답 42.4%)'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습니다.

즉, 여행객들이 체험 활동 자체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전의 '뽕지순례' 사례가 20대의 발길을 이끈 것처럼,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는 새로운 지역 방문을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4. 역설 2: 숙박 - 높은 중요도와 현실적 제약

숙소: 여행 계획의 핵심이자 현실적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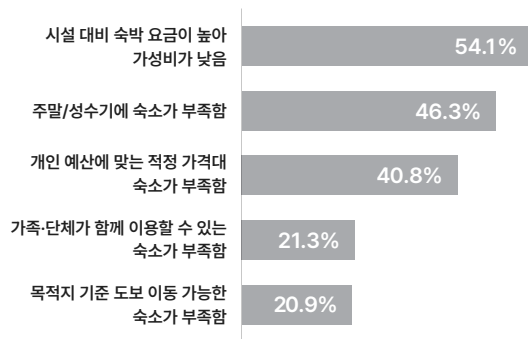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87.5%가 여행 계획 시 '숙박시설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교통 편의성이나 볼거리 등 타 요소를 상회하는 핵심 기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1년간(2025년 1월~2026년 1월)국내 지역 여행 계획 시 숙성별 "중요하다" 응답률 상위 5개 표기

그러나 예약 과정에서 여행객들은 현실적인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92.5%가 숙소 예약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시설 대비 비싼 요금으로 인한 낮은 가성비(54.1%)', '주말 및 성수기 객실 부족(46.3%)', '예산 내 적정 가격대 숙소 부족(40.8%)', '가족/단체가 함께 머물 공간 부족(21.3%)' 등이 꼽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행객들은 예산, 시기, 동행 인원 등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숙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 국내 지역 여행 시, 숙소 예약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불편함, 중복 응답 기준 상위 5개 표기

4. 역설 2: 숙박 - 높은 중요도와 현실적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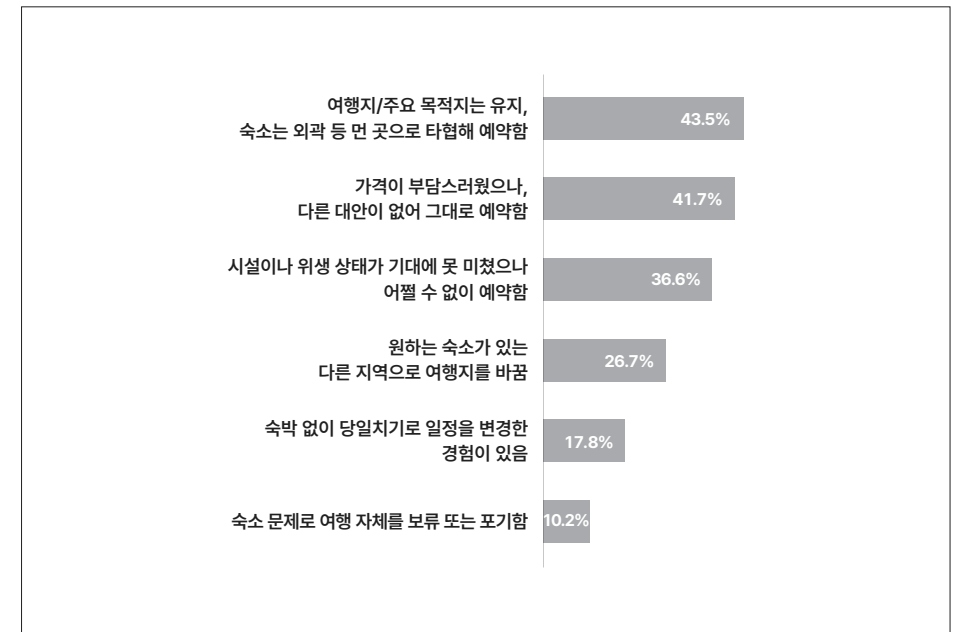
숙소: 현실적 제약 아래 타협 또는 일정 축소

이러한 다양한 제약 속에서 여행객들은 타협을 합니다.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예약을 강행하거나(41.7%), 목적지에서 먼 외곽 숙소를 잡는(43.5%) 등 제한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17.8%는 숙박 문제로 당일치기로 일정을 축소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변경(26.7%)하거나 여행 자체를 보류·포기(10.2%)한 경우도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특정 지역의 특정 숙소 형태에만 수요가 몰리며 발생하는 이 병목 현상이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소비(저녁 식사, 야간 관광 등)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숙소 예약 어려움으로 인한 여행 계획 변화



* 숙소 예약 시 겪은 어려움/불편함으로 인한 여행 계획 변화, 중복 응답 기준

5. 가능성: '머물 이유'를 만드는 로컬 숙소와 로컬 콘텐츠

가능성 ① 공유숙박: 지역 내 숙박 옵션 다양화

앞서 지역 여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숙박 시설 유형의 다양성 확대'를 네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단일 응답 기준 11%). 아래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공유숙박의 합리적인 가격, 다인원 수용성 등 획일화된 숙박 형태가 제공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합리적 가격

앞서 숙소 예약 시 여행객이 겪는 주요 어려움은 '시설 대비 비싼 요금(54.1%)'과 '예산 내 선택지 부족(40.8%)'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한정된 숙박 공급 체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공유숙박 이용자의 경우 이용 이유 1위로 '동일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59.2%)'을 꼽았으며, 향후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합리적 가격(46.4%)'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공유숙박이 기존 여행 시장의 비용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공유숙박 이용자들의 이용 이유 1위

59.2%

'동일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이유

46.4%

'합리적 가격'

유연한 공간 구성과 다인원 수용성

공유숙박은 한 개의 방부터 여러 개의 침실과 욕실을 포함한 독채 숙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 형태를 제공합니다.

50대는 '가격'보다 '가족이나 동행이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63.2%)'는 이유로 공유숙박을 선택**합니다. 즉, 호텔 방 여러 개를 잡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공유숙박'만의 공간 구조가 가족 여행을 중심으로 한 4050 세대를 다시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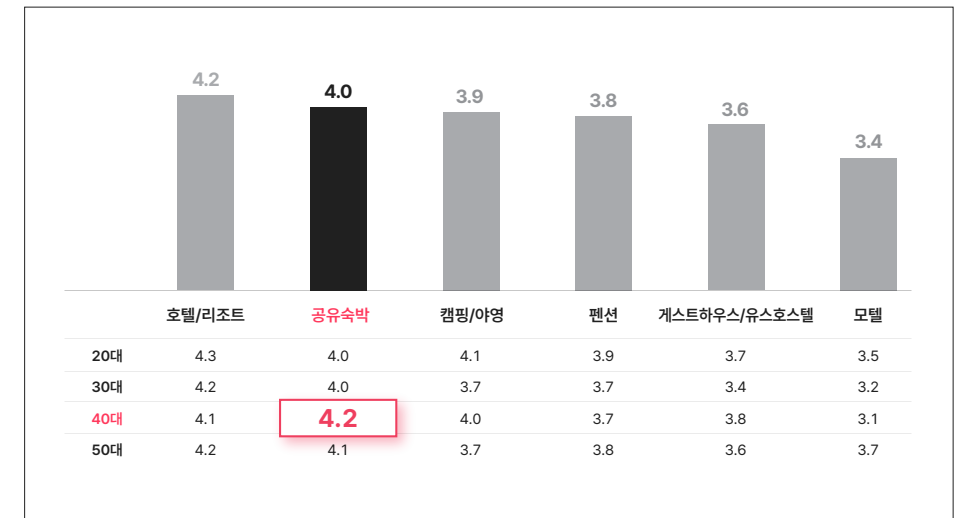
5. 가능성: '머물 이유'를 만드는 로컬 숙소와 로컬 콘텐츠

높은 이용 만족도

공유숙박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호텔 및 리조트(4.2점)에 근접했으며, 이는 펜션(3.8점)이나 모텔(3.4점)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0대 응답자 군으로, 해당 연령층의 공유숙박 만족도는 4.2점을 기록하며 호텔 및 리조트(4.1점)의 만족도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타 숙박 형태 대비 특정 수요층(가족 단위 등)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유숙박만의 긍정적인 메리트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숙박시설 유형별 만족도



* 국내 지역 여행 시, 숙소 예약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불편함, 중복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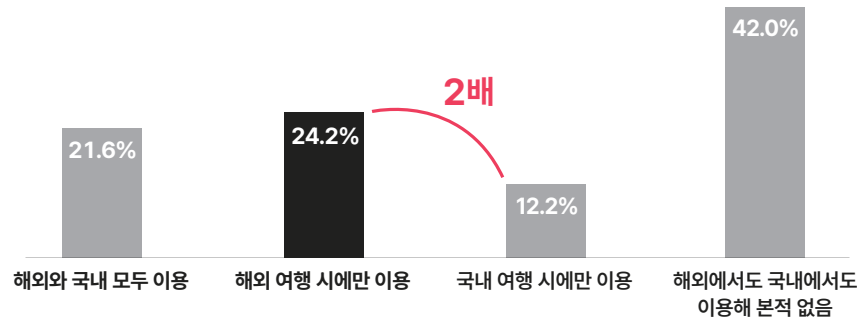
** 공유숙박 이용 이유, 향후 이용 의향 이유, 중복 응답 기준

* 최근 1년 내 국내 지역 여행 시 숙박시설 유형별 만족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한다)

5. 가능성: '머물 이유'를 만드는 로컬 숙소와 로컬 콘텐츠

해외 경험의 학습 효과

한국인들의 공유숙박 이용 경험은 '국내 여행 시(12.2%)'보다 '해외 여행 시(24.2%)'가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이미 해외 경험을 통해 공유숙박이 지닌 비용 및 다양성의 효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시장이 해외 대비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의 공유숙박을 모두 경험한 응답자의 75.9%는 "해외가 국내보다 공유숙박 선택지가 더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 시 공유숙박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존 숙소 대비 합리적인 가격(62.0%)'과 '도심 외 교외·소도시 등 다양한 지역 분포(46.6%)'를 1, 2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공유숙박의 물리적 특성이 국내 지역 여행 활성화에 요구되는 조건과 부합함을 보여줍니다.

국내의 공유숙박을 모두 경험한 응답자 중

75.9%
"해외가 국내보다
공유숙박 선택지가 많다"

해외 여행 시 공유숙박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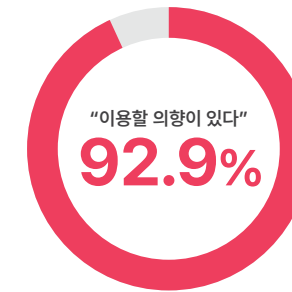
62.0% 기존 숙소 대비 합리적 가격
46.6% 도심 외 교외·소도시 등 다양한 지역 분포

5. 가능성: '머물 이유'를 만드는 로컬 숙소와 로컬 콘텐츠

국내 공급 확대 시 긍정적 파급 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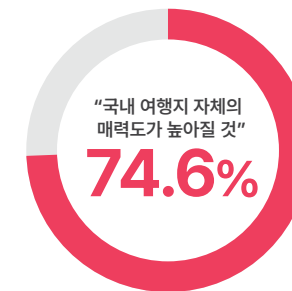
현재 국내 지역 여행 시 공유숙박을 이용해 본 응답자의 77.8%가 관련 인프라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해외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지역에 공유숙박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해외 선택지가 더 많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그룹의 92.9%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높은 잠재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국내 지방 내 공유숙박 충분 공급 시 이용 의향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74.6%는 공유숙박 옵션이 확대된다면 "국내 여행지 자체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지방 내 공유숙박 충분 공급 매력도



종합하면,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관련 제도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획일화된 국내 여행 수요를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가능성: '머물 이유'를 만드는 로컬 숙소와 로컬 콘텐츠

가능성 ② 로컬 콘텐츠: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경험'으로

잠재 수요를 견인할 로컬 콘텐츠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여행객의 기대 수준과 실제 공급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응답자의 42.4%가 지역 여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색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해, 양질의 로컬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콘텐츠는 공유숙박과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공유숙박 이용자의 22.2%가 '현지 동네의 로컬 일상을 경험하기 위해' 해당 숙소를 선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숙소가 투숙 공간을 넘어, 동네 시장 방문이나 골목길 산책 등 지역의 일상 자체를 콘텐츠로 소비하게 만드는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최근 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의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지역 특색을 살려 리모델링한 숙소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5.7%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이용 의향을 밝힌 응답자 역시 79.3%로 집계되어, 유휴 공간의 재생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여행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유한 스토리를 담아 재생된 로컬 숙소는 그 자체가 새로운 방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방문 위주의 기존 관광 패턴을 그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여행'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중복 응답 기준
** 국내 지역 여행 시 공유숙박 이용 이유, 중복 응답 기준

6. 결론: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에어비앤비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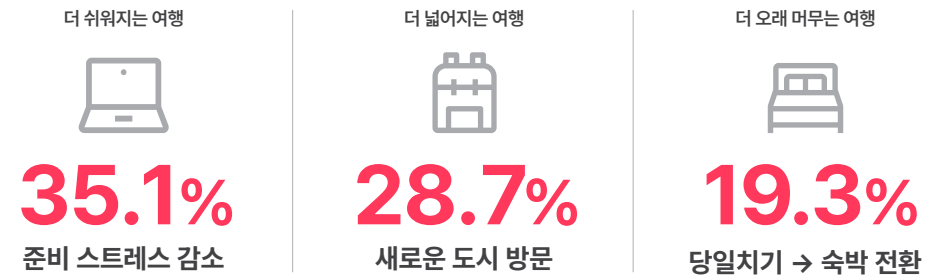
데이터로 확인된 두 가지 신호

로컬의 가능성

20대의 대전 방문 사례에서 나타나듯, 향후 여행지 선정에 있어 물리적 행정구역의 인지도보다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의 유무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증된 대안으로서 공유숙박

공유숙박은 기존 여행객들이 겪는 비용 부담과 인프라 접근성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숙소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83.1%가 여행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긍정적인 변화(83.1%)는 준비 스트레스 감소(35.1%), 새로운 도시 방문(28.7%), 당일치기의 숙박 전환(19.3%)의 합산 수치

6. 결론: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에어비앤비의 노력

“대한민국 방방곡곡” – 2026년 에어비앤비의 3대 방향

노력 1. 로컬 숙소 및 로컬 콘텐츠 발굴 및 홍보 강화 모색

한국관광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각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숙소와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여행의 매력을 알리는 참여형 소셜 캠페인 등 실질적인 로컬 여행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 2. 유희 공간(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 검토

지역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방치된 유희 공간을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체류형 여행의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프로젝트 등을 구상하며 지역 상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노력 3. 지역 숙소 공급 확대 및 제도화 논의 기여

더 많은 내국인 여행객이 다양한 지역의 공유숙박 옵션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내국인의 공유숙박(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이용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국인 공유숙박 이용 제도화 등의 논의에 발맞추어, 지역 여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겠습니다.

“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와 다양한 숙소 인프라의 결합은 획일화된 국내 여행 패턴을 다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앞으로도 누구나 가고 싶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